

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,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실시

[천성남]



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, 환경정화 활동 전개

[중부매일 천성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(지사장 김준기)는 지난 24일 옥천군에 위치한 서대저수지(안내면 서대리)와 남평저수지(안남면 지수리)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.

이날 행사는 약 20여명의 직원이 참여, 저수지 내 유입된 낚시용품, 병, 캔, 플라스틱, 일용품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옥천영동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저수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저수지 내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제거를 위해 저수지 주변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.

김준기 옥천영동지사장은 "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원천인 관내 46개 저수지의 수질보호와 더불어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